나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

(호세아 11:1~12)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자기계발서의 주제를 따르는 책들이나 긍정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자아긍정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격려나 희망을 주는 말이나 권고는 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피해야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원수입니다.
이를테면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을 위해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게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인의 원수로써 행동하고자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선민의 역사를 통해 증언하는 바는 자기긍정의 반대입니다.
BC.1400년경의 출애굽에서부터 통일 왕국을 거쳐 북 왕국 이스라엘이 BC.722년에 망하고 남 왕국 유다가 BC.586년에 망합니다. 약 900년간의 선민의 역사를 통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반드시 무엇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제일 촌스럽고 무지하고 악한 말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있다”라는 말들입니다.
촌스러움의 반대는 세련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다듬어지고 매끄러워지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이제까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세련된 생각을 할만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쁘고, 만족하고,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끝에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만큼 실패를 했다면 이제는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련되기는커녕 더욱 막무가내가 되어 촌스러움을 유지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그 촌스러움을 강요하고 전파하기까지 하니 거짓말쟁이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사기꾼과 같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마음의 짝짓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웅박은 박을 따서 주먹 크기의 구멍을 내서 속을 긁어내어 통처럼 만든 것입니다. 곡식을 담거나 여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뒤웅박의 가치는 무엇이 담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종자를 담게 되었다면 아주 소중히 여길 것이지만 여물을 담아두었다면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속담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잘 만나서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밭에 가서 무청이나 주워다 팔며 살아야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기준에서 보자면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귀천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바깥에 있는 세속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일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부자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으로 인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팔자는 뒤웅박입니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기만 한다면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에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매쟁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그만큼 세상의 궤변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라고 틀린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

다. 오히려 주저앉게 되었다면 절대 일어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죽을 지언정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을 잘되게 해보겠다고 애쓰고 행여 나의 노력으로 개선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더 큰 실패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참 느닷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 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확정적으로 예언하시다가 갑자기 버리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채 못 된 BC.722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실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왜 이러한 긍휼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중에 선민을 택해 가나안 복지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가나안 복지는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에 들어와 살게 된 선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언도하십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멸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선민을 미워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선민들이 멸망의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에덴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멸망을 자처하였고 참혹한 심판이 마땅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안개처럼 손에 쥘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민들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자처했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선민들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북 왕국 이스라엘이 이러한 멸망을 자처하게 된 과정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복지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면서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앗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지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십계명과 각종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민들이 복지를 살기 위한 걸음마였습니다. 어떤 삶의 경우를 만나든지 계명과 율법과 규례에 비추어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글씨 쓰는 연습을 할 때에 점선으로 된 교본을 따라 쓰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음마를 다 가르쳐주셨는데도 선민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욕되게 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그렇게 된 이유 하나를 제거하심으로써 선민들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의에 비추어 볼 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섰기에 어쩔 수 없는 멸망을 맞이하겠지만, 앞으로 이어지게 될 선민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중단치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보았던 선민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광야에서는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또 율법과 계명을 주어서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복지로 인도하신 후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선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평강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였습니다. 자녀가 비록 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의에 비추어서 망할 짓을 했고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없었고 선민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 한 가지를 제거하시고자 하십니다.

선민들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공의를 지키지 못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의가 지켜지지 않았기에 그로부터 시작되는 나머지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공의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짝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선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장 아래에서 살다가 수한이 차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두면 선민의 첫 번째 공의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의 짝으로 붙잡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짝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서로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짝 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해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마음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공의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배우자와 더 가까워져서 짝이 되었다면 공의는 깨지고 맙니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짝이 되는 대상은 비단 배우자뿐만이 아닙니다. 또 사람은 마음에 짝이 된 대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돈과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돈과 짝이 되면 수고와 노력을 바치며 돈 버는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돈이라는 기준으로 상대를 고릅니다. 사랑한 상대가 돈도 많더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상대 중에서 사랑할 사람을 고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돈과 짝이 되어서 모든 일을 같이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도 장만하고 살림도 다 준비해놓고 직업도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야 결혼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룬 후에 집도 장만하고 살림도 채워가며 수입도 조금씩 늘리면서 자녀도 낳고 살아가는 결혼관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에 따라서 경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대상이든 마음으로 짝을 찾고 나서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짝이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짝을 이루지 못하기에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못합니다. 한편 하나님과 짝이 된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저절로 살아지는 복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까지 선민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돈 가족 부흥 배우자 등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들이 가진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고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마음이 이 세상과 짝되는 것을 막는 장소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과 마음의 짝을 이루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등 돌림은 시작됩니다. 불의가 일어나고 공의를 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급해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솔깃하고, 손에 잡히는 대상들이 강렬한 체감을 주는 것일지라도, 내 몸을 주장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뒤바뀔 때에 마음에서 공의는 깨지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정의이며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공의가 이루어지면 이에서 비롯된 나머지 모든 공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공의는 복을 불러들이는 공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첫 번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인생의 모든 불행을 불러들이는 불의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자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아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마음의 짝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마음이 세상에 달라붙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 자아의식을 가짐으로써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죽은 것이 나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마음의 짝을 이루지 않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곧 첫 번째 공의의 실천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은 행위가 아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생활화를 할 수 없었던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러한 공의를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한 이후에도 계속 될 선민들의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세상과 짝하려는 원죄의 체질을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써 마음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혼을 준비한 청년들의 모습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후에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룬 후에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짝이 된 마음이 공의이며 정의입니다. 반대로 세상과 짝이 된 마음에서는 공의와 정의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삶의 균형도 깨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이 만지는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으로 대할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선민들에 대한 사랑을 성취해나가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자아의식을 가짐으로써 세상과 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로써의 자아의식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마음이 자녀와 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로서의 자아의식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주어진 직분의 자아의식이 항상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유지할 때에 마음은 하나님과 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짝됨 자체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임을 십자가를 보며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짝이 되실 것이고 모든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절대 안 될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과 짝 됨을 피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짝 되심으로써 하늘을 향해서도 세상을 대해서도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